



조선조 최초의 서양 유학 여의사

박에스터 (金點童, 1877~1910년)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박학사)

지난 11월 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나는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의 여성 과학자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아마 저 유명한 여류 과학자인 퀴리부인의 생일(1867년 11월 7일)을 기념해서 이날을 '여성 과학자의 날'로 정한 모양이다.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퀴리부인의 상대가 된직한 우리 여성 과학자는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각해 낸 인물이 김점동(金點童, 1877~1910년 일명 박에스터)이었다.

우리나라의 첫 무명(無名) 여류 과학자 김점동은 세계의 첫 유명(有名) 여류 과학자 퀴리(Curie, Marie 1867~1934년)부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살았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박에스터는 퀴리 보다 10년 늦게 1877년에 태어나서 67세를 살았던 퀴리 보다 훨씬 젊은 33세의 나이로 1910년 세상을 떠났다. 퀴리는 김점동 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셈이니, 그것만으로도 둘은 비교가 안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조차 김점동 또는 박에스터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그에 비하면 한국 사람치고 퀴리부인을 모르는 사람

은 극히 드물다. 겨우 33년을 세상에 살다간 이 한국 여성 보다는 34년을 더 살고 간 퀴리가 기억에 남기 쉬워 서일까? 물론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퀴리는 세계 과학사상 중요한 대목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여 노벨상을 두번이나 탄 인물인데 비해, 우리의 김점동은 거의 무명인으로 세상을 짧고 조용히 살다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란 주어진 범위에서 서술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국 역사에서는 퀴리 보다는 김점동(박에스터)이 더 중요한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점동은 아마 극히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이름만 겨우 김홍택이라 알려진 그녀는 1877년 3월 16일 태어났다. 사실 그녀의 출생일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서울 정동에서 낳았다는데, 형제 자매의 숫자도 아직 모른다. 언니가 적어도 한명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10살 이전 선교사와 인연

김점동은 서양식 이름 '박에스터' (朴愛施德 Esther Park)로도 알려

져 있는데, 서양식 이름 붙이기 덕분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10살 이전에 서양 선교사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1886년 전후의 일이다. 조선왕조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정식으로 개국했고, 서양과 정식으로 교류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다시 6년 뒤인 1882년 朝美수호조약의 결과로 비롯했다. 미국과 통상수호조약을 맺으면서 서양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1886년(고종 23)에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부인(Scranton, M.F.)이 서울 황화방(皇華坊), 지금의 서울 중구(中區) 정동(貞洞)에 창설한 것이 이화(梨花)학당이었다. 박에스터가 이때쯤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 손에 이끌려 바로 이 스크랜턴부인을 만났다. 당시 기록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남아 있다—“아주 추운 때였는데, 그 선교사 부인은 나를 스토브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 나는 전에 스토브를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나를 그 스토브 안에 집어넣으려는 줄 알고 겁을 잔뜩 먹었다.”

이 일화가 1886년 쯤의 일인가? 아무튼 김점동은 이렇게 하여 이화학당



조선조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金點童/박에스터)은
당시 서양 선교사와의 인연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영어를 공부한 후
미국에 유학, 여의사가 되어 돌아온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과학자이다.
김점동은 귀국 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10년 동안 3천여명의 여성환자를 돌본 공로로
고종 황제로부터 은메달의 공로 표창을 받기도 했으나 33세때 폐결핵으로 일찍 생을 마감했다.

학생이 되었고 영어를 잘 하여 여자 선교사이며 이화학당 선생님이던 몇몇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을 도와 통역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가 박유산(1868~1899년)과 결혼한 1893년에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선교사의 주선으로 결혼했는데, 장소는 정동교회였고, 결혼 비용은 이화학당이 부담했다. 당시 이화학당은 이렇게 주선한 결혼이 성사될 경우 비용을 학교가 부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교회 결혼식으로도 전해진다. 이리하여 조선의 처녀 김점동은 아줌마 박에스터가 된 셈이었다.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졸업

박에스터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895년 초 미국 감리교 여성 선교사 로제타 홀(R. S. Hall 1865~1951년)을 따라 미국에 건너갔다.(이 부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1년 전 여기에 소개한 일이 있다.) 뉴욕주 리버티에서 2월부터 공립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공부한 다음, 9월부터 1년 동안 간호학교를 다니고, 1896년 10

월 1일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지금 Johns Hopkins의과대학 전신)에 입학했다. 여기서 그녀는 조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라틴어도 공부하고, 물리학과 수학 같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 5월 15일 이 대학을 졸업하여 조선인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된다. 남자 의사도 물론 몇 없을 때이기는 하지만,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의사였다. 더구나 여성으로서 과학을 공부한 일이 전혀 없을 때이니 당연히 조선 최초의 여성 과학자라 꼽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퀴리와 비슷하게 박에스터 역시 헌신적이고 협조적인 남편을 만났다. 아니 피에르 퀴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기 희생적인 훌륭한 남편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박에스터의 남편 박유산은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갔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 곧장 뉴욕주의 리버티에서 농장에 취직하여 막노동으로 아내의 볼티모어의과대학 공부를 뒷바라지했다.

그리고 1899년에서야 겨우 아내를 따라 볼티모어로 가서 함께 살면서 그곳 식당 일을 얻어 역시 돈벌이에 바빴다. 하지만 그는 이미 폐결핵으

로 온전한 몸이 아니었다.

몇달 뒤인가? 그해 가을에 박유산은 아내의 대학 졸업을 반년 남긴 채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퀴리 부인 보다는 1살이 작고, 그 남편 피에르 보다는 9살 연하였던 박유산은 미국 생활 4년반 남짓을 아내를 돌보는 데 바친 채 병으로 쓰러져 갔던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박에스터는 1900년 귀국한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서양의학을 공부한 여자 의사가 되어 귀국한 그녀는 곧 정동에 있었던 보구여관(保救女館)의 의사로서 맹활약하게 된다. 보구여관은 지금의 이화여대부속병원의 전신에 해당하는 여성전문병원으로 서양 선교 여의사가 경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장소를 평양으로 옮겼는데, 그녀의 후원자였던 로제타 홀이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 죽은 남편을 기념하여 세운 기홀(起忽)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였다.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순회, 무료진료를 베풀면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맹아학교와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고종(高宗) 황제로부터 은메달을 받았다. 귀국한지



10년 동안 박에스터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약 3천명의 환자를 돌보았다고 기록은 전한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그녀가 수술로 환자를 간단히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귀신같은 인술을 가진 여성이라 칭송하는 수도 있었다.

이렇게 바쁜 치료활동을 벌이던 그녀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남편이 걸려서 목숨을 잃은 똑같은 질병 때문에 그녀는 드디어 막판에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북경으로 요양을 떠나기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채, 1910년 4월 13일 서울의 둘째 언니(김마리아)집에서 영양실조와 폐침윤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생전에 그녀는 홀여사를 도와 조선에 처음으로 간호학교를 만드는데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거나 의학 연구를 할만한 그런 수준에 있던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귀국후 여성환자 3천명 돌봐

사실 박에스터의 공적을 꼽는다면 귀국 후 10년 동안 3천명의 여성 환자를 돌보았다는 사실 밖에 그리 크게 들 것이 없을 것도 같다. 박에스터와 비슷하게 결핵도 앓았지만, 퀴리부인은 결핵으로 죽지 않고 67세까지 장수하면서 딸들을 낳았다. 이에 비해 우리의 박에스터는 아무런 소생을 남기지도 못했고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갔을 뿐이다.

1909년 4월 28일 초대 여자 외국 유학생 한국 환영회가 서울 서궐(西闕=경희궁)에서 열렸다. 고종, 순종, 그리고 윤치호 등 당대 명사들이 주

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미 9년 전 귀국한 박에스터가 첫 주인공이었다. 또 16살 때부터 일본을 거쳐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유학하며 음악과 외국어를 배우던 중 관립 한성고등여자학교 설립으로 귀국한 윤정원(尹貞媛)과 1900년에 미국 웨슬레안대학에서 미국의 학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이화학당 기숙사 사감과 영어 교사가 된 하란사(河蘭史) 등 셋이 주인공이었다. 그 정도로 박에스터는 한국 여성사의 첫 장을 장식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조선 최초의 서양 유학 의학도 박에스터의 일생은 당시의 다른 비슷한 조선 유학생들을 떠올리게 해 주기도 한다. 남자 가운데에는 그녀 보다 조금 먼저 미국에 유학하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고, 의학도로도 그녀 보다 약간 빠른 남자 유학생이 있었다.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자인 변수(邊燧/樹, 1861~1891년)와 한국 최초의 남자 의대 졸업생 서재필(徐載弼, 1864~1951년)이 그들이다. 1886년 1월 도미한 변수는 1891년 메릴랜드농대(지금의 메릴랜드대학교)를 졸업하여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학 졸업생이 되었고, 1885년 4월 도미한 서재필은 1893년 6월 컬럼비아의과대학(지금의 조지 워싱턴대학교)을 마쳐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다. 박에스터 보다 나이는 둘 다 10살 이상 많았고, 미국에 가기로는 박에스터 보다 10년이 앞섰다.

그런데 불행하기로는 이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최

초의 대학 졸업자 변수는 대학 졸업과 함께 모교에 남아 일본 및 중국의 농업 실태를 연구하여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일을 계속했다. 개화파로 지목된 그는 당시 귀국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 가운데 그는 1891년 10월 22일 대학 구내를 갑자기 통과하는 급행열차에 치어 사망하고 말았다. 졸업한지 겨우 몇달 뒤의 일이고, 그의 나이 겨우 30세 때였다. 서재필 역시 개화파의 일원으로 절대 귀국은 불가능한 가운데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여성과 결혼하여 개업했지만, 병원은 쉽지 않은 가운데, 갑오개혁으로 개화파의 입지가 나아지자 1895년 말 귀국하게 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 주모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그의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가 모두 처형당하거나 자살했다.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귀국했고, 왕실에 대해 애정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1897년 말 중추원 고문에서 해고당하고 이듬해 5월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회개혁운동에 열성이었다. 독립협회를 만들어 그런 개혁운동에 앞장을 섰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운영했다. 그가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의료 행위나 의학 또는 과학교육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다.

때로는 시대가 인재들을 슬프게 만든다. 김점동과 변수, 그리고 서재필 등은 모두 그런 시대의 희생자들이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⑤7